

첫임상실습에서의

업무분담

~학생들을 위한~

<보수론대학교간호학교강사> Agnes P. Mullins

<서울의과대학 간호학과> 박정호역

나는 학생들을 위한 오늘의 임상 실습 업무분담을 하기 위하여 분주한 병원 생활을 하여야 하고 시간내에 교수회의에 들어가야 한다. 특자들은 이번 상태에서 한 간호강사가 기본적인 간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들었는지?

모든 사람들은 임상에서 학생 실습지도에 너무나 빈번한 class 나 conference, 또한 meeting plan으로 뒤틀리를 해 버린다.

임상실습은 모든 교과목의 종합체로서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과목을 직접 실습장인 병원에서 시험하고 축련하는 것이므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이고 전전한 교육을 담당할 임상강사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게 된다.

이상적인 임상강사는 학교강의와 임상지도를 함께 하면서 환자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학생요구를 뒷받침

할 병실 분위기와 지도 방침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는 물론 동료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병원기구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성을 갖춘 축련된 간호원으로서 우수한 간호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임상강사는 학생 임상실습에 환자 선택을 기본적인 기준 범위에 따라 재획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계획기준 범위

학생 임상실습에 필요한 다섯 가지 중요한 계획 기준범위를 생각하여 환자를 선택한다.

1. 학과목의 이념과 목적
2. 학생들의 요구와 능력
3. 임상강사의 성실한 계획
4. 풍부한 임상재료
5. 임상 실습 장소의 환경

학과목의 이념과 목적;

이는 학생학습의 환자 선택을 위

한 교과과정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기초간호학 과정에 있는 학생실습이라면 충정도 환자를 선택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업적인 직원으로서 학생의 입장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점 중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교과목 중 특별한 과제를 습득하려면 매일 환자를 선택하여 적절한 실습 경험을 얻도록 임상강사는 계획한다.

학생의 요구와 능력;

임상강사는 각학생의 요구, 불만, 긴장이나 약점을 잘 알아서 학생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균형있는 환자 분담을 계획한다. 즉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하여 의미있고 계획없이 간호하기 쉬운 환자 분담의 단복은 피해야 한다.

임상강사에 성실한 계획;

학생의 업무분담을 계획하는데 임상강사는 원하는 장소에서 적당한 시간에 누구와 함께 계획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업무계획표를 작성한다.

예를들면 아침 실습시간에 먼저 세척하는 학생을 지도하고 다음은 균육 주사하는 학생을 갈등한 다음에 수술전 환자준비하는 학생을 보조할 것을 등을 계획하여 각 학생마다 자기가 임상강사에게 지도받을 시간을 알아서 효과적인 간호계획도 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학생이 환자나 동료간에 실천한 간호방법이 어떤 반응

을 보여주었는지 판찰하고 순회하기 위하여 계획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풍부한 임상재료;

학생임상실습중 풍부한 임상재료가 준비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환자수인데 매일 평균 환자수가 실습학생이 요구하는 경험을 얻기에 충분하며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수가 적으면 임상강사는 간호문제를 가지고 병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자선택하는데 어렵겠으며 학생은 실습경험 중에 얻어질 수 있는 간호목적을 계획, 구체화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반대로 너무 환자수가 많으면 임상강사는 환자요구를 찾아 문제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없으므로 전전학 교육적 기본 의무 수행에 곤란한 입장이 되고 활동적인 면에서 충분한 환자간호는 할 수 없고 업무량의 과중으로 학생에게 너무 많은 업무분담을 하게 되어 하나의 선생으로서 또한 간호원으로서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 몇명의 일원환자가 이상적인가는 의문인 것이다. 어떤 환자는 상태가 너무 심하여 학생분담이 어렵고 어떤 환자는 경험이 없는 학생 간호원에게 간호받기를 원치 않으므로 학생에게 경험케 할 간호내용에다 환자요구를 합쳐서 매일 경험하는 질병의 경과에 따라 효과적이고

균형이론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임상실습 장소의 분위기;

또한 실습장소인 병실의 물질적인 도구 및 물품의 정비와 정신적인 긴장을 실습경험중 선택하고 습득하는 데 있어서 자극을 주거나 방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병실은 들팡, 무명있는 방, 2名 이상 있는 방이 골고루 있는 것이 좋으며 쳐치실의 위치, 복육과 손씻을 물을 얻는 sink, 그의 다른 물품의 정비는 지정된 시간에 얼마나 많은 환자간호를 하는가를 좌우하며 미리 준비된 질세척이나, 소독된 도뇨 tray 준비는 시간과 energy, 운동량을 절약할 수 있다.

실제 계획 실천한 기초간호학 실습의 1예 위에 제시한 계획기준법위에 따라 Boston大學校 간호학교 기초간호학을 위한 나의 임상실습 계획의 1례를 적어 보겠다. 모든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group 별로 임상실습을 하는데 월요일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나는 월요일은 다음 요일들의 실습을 계획하고 환자선택하는 날로 정했다. 또한 월요일은 퇴원이 많은 주말을 지나 새로 입원한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월요일 오전 8시는 임상강사가 학생실습을 계획할 적당한 시간이 아니어서 즉 수간호원은 낮번 근

무간호원에게 업무분담을 하고 의사들은 아침 회진전에 환자 상태 기록을 재확인하여 Kardex는 모든 직원들이 계속 사용하는 바쁜 시간이므로 나는 이런 혼잡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병실에 도착하여 환자 선택하는데 몇 가지 계단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나는 먼저 모든 환자를 방문하면서 그의 진단 및 질병의 정도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환자이름, 병실 번호를 적어둔다. 만약 Kardex를 이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면 나는 주의깊게 교과목의 목적과 전시간에 배운 강의내용을 참고하여 실습할 내용을 관찰하고 검토한다. 이때 환자상태기록, 의사지시, 치료적 섭생, 및 즉시 시행할 치료계획을 알아서 학생 각자의 요구, 능력과 먼저번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시험적으로 환자분담을 해둔다. 또한 다음날까지 퇴원 전파동 불의의 사실에 대비하여 몇몇 환자를 더 선택하여 둘이 좋다. 다음 감독, 수간호원, team leader와 함께 그들이 편리한 시간을 이용하여 오전에 conference를 하는데 이 때 시험적으로 선택한 환자를 재검토하여 처음 실습나온 학생들이 간호하기 힘들면 환자분담을 변경하고 수간호원에게 더 좋은 실습경험과 조직적인 team구성을 위하여 제안하고 의논하여 업무분담을 다시 한다.

마지막으로 임상업무 분담표를 작

성하기 전에 선택된 환자를 다시 방문하여 환담하면서 특별한 간호문제, 학생이 간호하면서 당면할지 모르는 난문제를 미리 짐작하여 해결점을 준비하고 환자에게는 다음날 간호해 줄 학생간호원의 이름과 근무시간을 알려준다.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습시간인데 바쁜 오전에는 기본적인 아침간호 의논하기 어려워 덜 분주한 오후에 오전에 하지 못한 환자요구를 들어주며 특별히 환자는 물론 그의 방문객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점심시간은 환자와 함께 있으면서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의 즐거움을 관찰 평가하고 영양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도 하게 한다,

가능하면 한 번더 같은 환자를 분담시켜 환자와 더욱 친해질 수 있고 학생자신이 간호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고 환자의 상태변화, 치료 및 간호결과를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같은 학생에게 간호받기 원하며 따라서 학생 개인은 물론 교육과정에 이점을 가져오게 한다.

유용한 세 가지 방안;

나는 다음날 학생실습에 필요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유용한 세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즉 임상업무 분담표, 임상강사 업무계획표, 학생임상

업무 계획표이다.

1. 임상업무 분담표(clinical assignment sheet)

이 양식은 모든 병실 직원에게 학생이 간호할 환자를 알리고 학생의 근무시간, 날짜, 임상강사의 이름, 학생 이름과 분담된 환자이름, 학생들의 간호범위를 명시해 둔다. 실습 경험중 환자에게 투약하지 못함을 알리며 간호원은 투약, 근육주사등 제외한 모든 간호를 할 수 있음을 알아 계획할 것이다. 임상업무 분담표는 환자선택한 즉시 준비하여 게시판에 붙여 수간호원이 다음날 간호원업무 분담을 계획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

2. 임상강사 업무 계획표

나는 학생들과 지나면서 Kardex 사용의 소요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업무 계획표를 작성한다. 이 계획표에는 실습학생 명단과 분담된 환자들을 Kardex에서 그들의 투약, 치료 간호지시를 요약하여 책에 모든 학생 활동의 정도와 양상을 짐작하여 알 수 있다. 즉 각종목마다 간호소요 시간을 알아서 계획표를 작성하여 실습 지도한다. 이 계획표는 학생들과 간호계획을 의논할 때나 다음 실습계획을 작성할 때나 Kardex에 빠진 사항을 재확인하는데 유용하다.

3. 각학생 임상 업무 계획표

이 계획표는 임상실습 전에 각학생에게 분배하는데 각학생에게 분담된 환자이름, 나이, 진단, 식이섭생, 간호지시 투약 및 처치등이 적혀 있다.

이상적인 것은 학생 자신이 분담된 병실로 가서 환자 방문후 환자기록을 읽고 다음날 실습을 위하여 간호 계획하는 것이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 학교와 병원파의 거리가 멀고 학생 강의 시간 등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제 계획표를 나누어주어 쓰여질 투약, 치료, 식이, 간호문제를 재검토할 기회를 주고 Kardex를 재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계속적인 업무분담 평가;

위와 같이 학생 업무분담을 계획한 후 임상강사는 철저한 임상실습에 필요한 많은 지식을 축득하여 안심하고 다음날 병실에 나간다. 그 다음 밤사이에 환자상태에 급작스런 변화로 계획을 변경 할 사항의 여부를 조사하여 수간호원과 간단한 회의를 갖는다. 나는 실습 도중 나의 목적과 학생 능력에 비추어 업무분담한 것을 세가지 방법으로 평가한다.

첫째 분담한 업무를 취급하는 학생에 대하여 관찰하고 느낀 바를 통하여 그 학생의 업무분담이 실제적 인지 이 수준에 있는 학생에게 과충 한 것인지 목적 달성을 불충분했던 것 인지를 평가한다.

둘째 학생에게 group conference 때 업무분담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실습경험중 보충할 것, 방해한 요소를 분석하여 학생이 느낀 바를 얘기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학생에게 매일 임상실습 보고서를 쓰게 하여 업무분담한 것을 비판한다. 이 보고서는 병실실습장에서 느낀 바 반응을 강조하면서 체험한 이야기이므로 여러 면에서 유익한 교재가 되는 것이다.

훌륭히 업무분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모든 법규규정과 시간에 꼭 맞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젊은 사고를 반영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환자업무분담은 학생들에게 유효한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나아가서 임상강사는 하나의 직원으로서 확고한 직업적 지위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Nursing Outlook Feb. 1965 에서〉

남자간호원 실태 조사

우리나라에서 남자간호원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36년 4월 1일이다. 그 후 지금까지 총졸업생수는 32명으로 그 분포상황은 다음과 같다.

병원	접	사	실	—3	의	사	—2	물리치료	실	—1	의	학	공	부	—2	
X-ray	실	—2	휴	직	—2	마	취	실	—1	미	상	—1				
병	실	—7	의	국	—6											